

심사 총평*

김형중

시, 소설, 동화를 막론하고 이번 5·18문학공모에 응모한 작품들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데에는 세 사람의 심사위원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

첫째 문제는 5·18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다, 오해가 있는 듯싶었다. 5·18문학이라고 해서 반드시 5·18을 소재와 주제로 한 작품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협소한 발상이다.

5월 정신이란 항상 '당대 저항의 극한치'라고 볼 때, 작금의 침예한 문제들과 5·18을 연관짓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려는 '역사적'인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했다.

둘째 문제는 세대간 단절의 문제였다. 상당수의 작품을 젊은 예비 문인들이 보내왔다. 그러나 그들이 5·18을 바라보는 관점은 지극히 교과서적이고 인공적인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관습적인 영탄과 식상한 서사가 주를 이루는 작품들이 태반이었다. 5·18을 자신의 문제로,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형상화하려는 진정성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

까탈스런 심사위원들의 바람을 충족시킨 몇몇 작품들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세 당선자들에게는 축하와 격려의 말을,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한다.

5·18문학공모가 향후 한국의 가장 진보적 문학인들의 등용문이 되길 기대한다.